

# 너무 잘 구운 바베큐로 군민들을 사로잡은

## 김 · 포 · 지 · 부



▲ 김포 농업인의 날때 돼지고기 시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거리가 보이는 창가에 흰눈이 소복히 쌓였다.  
걸어가는 이들의 머리와 어깨 위에도 어김없이 흰눈들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매서운 눈발에 몸을 움츠리고 총총걸음을 한다.  
사료값의 폭등과 돼지 가격의 하락으로 설 땅을 잃어버린  
우리네 양돈가들의 마음 또한 이 겨울의 스산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양돈인들을 위한 비영리 생산자 단체인 본회는 중앙회를 비롯 9개 도협의회와  
83개 시·군 지부(회)가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취재 : 조 진 현 -

**경** 기도 김포지부는 1979년에 구성되어 초대  
이상천 지부장을 비롯해서 현재 9대 박재  
서 현 지부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리 짧지 않은  
전통을 가진 지부이다.

현재 김응철, 장근풍 부지부장과 민경국 감사,  
이승관 총무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사무업무는 이번에 결혼식을 올린 류경화씨가 담  
당하고 있었다.

필자가 취재를 간 날이 마침 김포지부의 '98년  
도 1/4분기 정기감사의 날이었다. 오전에 감사를  
마치고 정겹게 모여앉아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반찬과 안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양돈협회 김포지부의 첫인상 이었다.

농담속에서도 어려운 현실이 간혹 이야기 되어  
지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유의 여유로움  
과 웃음이 주위의 사람들까지 미소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리에 함께 한 3,000두 규모의 한 회원  
농가가 양돈을 그만두게 되었고, 돼지를 헐값에 넘  
기며, 기자재와 설비를 다른 사람들이 각각 나눠가  
진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이야기거리가 아니었다.

### 통돼지 바베큐, 제육 쌈 냉채, 제육 사 브샤브 요리로 시식회 열어

지부는 '94년에는 도시화로 인한 양돈회원의  
감소로 지회로 격하되었다가 '97년 현 박재서 지  
부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5월 본회 이사회의를 거  
쳐 지부로 승격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포지부는 매년 11월 김포 농업인의  
날 행사때 돼지고기요리 시식회와 돼지 바베큐  
시식회를 실시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노력하  
고 있다.

지난 '97년 11월에도 11일, 12일 이틀 동안 김포군민 약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돼지 바베큐와 돼지고기 제육 쌈 냉채, 제육 샤브샤브 등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를 선보였다. 통돼지 바베큐는 숯에 구워 기름이 빠진 상태로 어느 요리보다 감칠맛이 더해 4마리를 구웠지만 한 마리당 30분이 소요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제육 쌈 냉채와 제육 샤브샤브 요리 또한 각각의 시식회가 무색해질 만큼 호황을 누렸다. 이에 따라 김포지부는 김포군민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매년 계속해서 돼지고기 홍보를 위한 요리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분기마다 정기 자체감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 이행에도 충실하고 있으며, 지난 '97년에는 회원 농가들의 바램에 부응하여 여러농가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오는 길에 평화의 땀을 들러 회원 농가들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 보이지 않는 응집력이 지부의 자랑

지부장은 김포지부의 자랑을 묻는 질문에 “우리 김포지부는 큰 종돈장이 있는 관개로 우수한 모돈을 가진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응집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가가 있어야 협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같은 양돈인끼리 힘을 합쳐 지역 양돈인들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진정한 대한양돈협회 김포지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하였다. 대외적 어려움으로 벌써 열두농가나 탈퇴해 올해는 회원 영입과 회원들의 단합력을 높히는 데 힘을 쏟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양돈산업의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지부는 회원들의 회비와 찬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부운영에 어려움이 많



위/작년 봄 회원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 후 되돌아 오는길에 평화의 땀에 들러  
아래/'96년 10월 지부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가진 현판식

다고 이야기 하고 김포는 지역의 특성상 가장 큰 소비시장인 서울의 근교에 있어 따로 협회를 거치지 않고도 구매조건과 판매조건이 우수하여 타 지부에서처럼 공동판매나 공동구입사업 등 지부 운영사업에 어려움이 많아 회비와 찬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설명했다.

지부장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야 그것을 내세우고, 배가시켜 협회가 나아갈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3월 이후 돼지가격이 오른다 해도 사료값이 올라도 벌써 너무 올랐습니다.”며 지금의 어두움을 말해 주듯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養豚**